

대한 양계협회 소식

동두천지구 분회 현판식 거행

동두천지구 양계업자들의 모임인 대한양계협회 동두천지구 분회(회장: 최진삼)는 지난 5월 16일 본회에서 제정한 현판식을 본회 총정택 전무, 강금노 부회장과 위원장 등 각 업체별 지역유지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유상철

편집부장 사임

지난 4년간 본협회 월간양계 편집을 위해 수고하던 유상철 편집부장이 지난 5월 31일부로 동직을 사임하고 경기도 인천소재 대한싸이로(주) 운영보좌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부회분과위원회

야유회

대한양계협회 부회분과 위원회(위원장: 강금노)는 각 부회업체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화) 남이섬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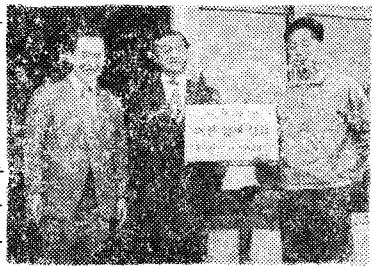
대한양계협회

대체구좌개설

대한양계협회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체 구좌를 개설했다. 대체구좌 번호는 서울

대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회장인사, 경과보고, 총정택 전무, 강금노 위원장, 동두천 농협 단위조합장등의 격려사에 이어 현판식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기념식에 이어 기념촬영 후 간단한 칵테일 파티를 가졌다. 이어 거행된 74년도 임시총회에서는 앞으로 분회의 운영방안 및 사료, 약품, 초생추의 공

동구입, 계란, 닭고기등의 공동 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1927번인데 앞으로 회원의 회비 등 모든 송금은 이 대체구좌를 통하여 훨씬 편리해지리라 믿으며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검정위원회개최

대한양계협회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는 지난 5월 30일 검정회의를 갖고 제 6회부로 일

출품제회와 현재 진행 중인 7, 8회 산란계검정 중간성적을 검토했다.

그런데 제 6회 부로일러 출품의 회 공문은 이미 각 업체 및 시협장에 전달되었으며 6월 4일까지 종란을 수집하여 대한양계협회 탐경제 능력검정소에 입란하게 될 예정이다.

동물약품협회 창립 3주년 행사

한국 동물약품협회는 지난 5월 5일 창립 3주년 행사로 경기도 광동에서 정부관계기관의 직원과 각관련업체를 초청 야유회를 가졌다. 동물약품협회 부회장의 인사와 아울러 이종희위생과장은 축사를 통해 동물약품업체는 불황속에서 단결과 신뢰로서 어려움을 극복 꾸준히 성장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치하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합심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이날 동물약품업체가 물질양면 지원을 해준 농수산부 가축위생

과 이창규씨께 감사패를, 업계발전을 위해 공로가 많은 김조옹전무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날 야유회에는 관민 친선 배구대회, 청백팀 배구대회, 고무풍선놀이, 노래자랑, 보물찾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되었는데 사회에는 뾰족이 이상용 군의 원맨쇼를 열었던 재치있는 사회로 하루를 유쾌히 보내며 서로의 친목을 돋우 했다.

한편 이날놀이에서 가장 인기를 독점한 한국비타민해드워터스 이정순양에게 여자인기상을 수여했다.

닭고기 검사 받도록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방침

농수산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 생 산 및 수요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닭고기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당국의 검사를 받아 야만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규 제할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개정안에서 현행법에 의뢰 검사품목인 닭고기는 강제 검사품목으로 지정토록 할 방침이라 한다.

하이섹스지 4호 발간

한국유리브리드 협의회(회장 : 이계조)는 격월간지인 하이섹스 4호를 발간했다. 하이섹스 4호에는 금후의 난가전망의 과학적 일 분석, 화란유리브리드 그룹 헨드릭스 회장과의 인터뷰내용, 양계관리의 성과분석, 방역관리 채점표, 그리고 현대양계 산업의 불가사의 질병으로 지적되고 있는 육시류의 예방과 관리 등 다채롭게 엮어져 있다. 이책을 원하는 양계가 및 구독희망자는 우편 100원을 동봉하면 우송해 드린다고 한다.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동 50-1 (천호부화장)

한국바브록 월례회

한국바브록 협력회(회장 : 윤경중)는 지난 5월 15일 대구 신일부화장 대표 정재덕씨의 부친이 작고함에 따라 모든 회원이 그 장례식에 참석, 조의를 표했다. 바브록 협회는 이곳에서 월례회도

함께 가졌는데 회원간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다짐했다.

미국사료곡물협회 양돈강습회 개최

미국사료곡물협회는 한국사료협회, 동협과 공동 주관으로 5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양돈강습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강의내용은 양돈사료수급현황과 전망(유윤수), 새로운 생산기술 및 양돈업의 전망(렌스만), 돈육마케팅(동협)이며 강습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29일(수) 충남예산
" 31일(금) " 대전
6월 3일(월) 서울여성회관
" 7일(금) 충북영동
" 12일(수) 경남진해
" 18 (화) 전남광주
" 21 (금) 전북전주

미국사료곡물협회 연암축산학교와 양돈사양시험

미국사료곡물협회는 연암축산 고등기술학교와 공동으로 양돈사양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본 시험은 20두씩 4군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는데 고에너지 옥수수사료, 옥수수+보티사료, 현행 배합사료, 고강피류사료구로 나누어 사양시험을 실시하고 등지 방두께, 도체등급, 중체량, 사료 효율,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한다. 시험위원은 이용빈교수(서울 대농대)와 렌스만이다.

FAO/
UNDP

축산조사단
내한

동남아 개발도
상국가의 축산발
전을 위한 畜產開
發센터 설립의 전초작업으로 축
산각분야의 전문가 7명이 6월
중순경 내한하여 6주간 예정으
로 한국의 축산 각분야에 걸쳐
기초조사를 할 예정이다. 본 조사
에는 동남아 15개국이 대상이되
어 1년간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 이달의 인사 동정

■ 이창구박사(안양가축위생연
구소장)는 불란서 파리에서 열리
는 국제수역회의에 참석(5月 12
日)하고 귀국.

■ 윤병성씨 미국도스 한국 총
대리겸인 유니화학사장으로 취임,
동물약품을 취급하기로…윤병성
씨는 전에 서울사료 전무로 근무
한바 있다. 전화연락은 22-8505
로 하면된다.

■ 이창립(농수산부 축산국 위
생과 수의체장) : 국립동물검역소
인천지소장으로

■ 정현용씨(전 명지목장 축산
부장) 퓨리나 코리아(주) 구매부
로

■ 이희재씨(축산단체 연합회
사무국장) 카나다 항발(농업 연
수차)

■ 장지종씨
현대양계사 취재부로





한국 축산단체연합회 임시총회 개최

사단법인 대한 축산진흥회는 사단법인 한국축산 단체연합회로 명칭을 바꾸고 지난 5월 18일(토) 세원호텔(Seoulin Hotel)에서 총회를 갖었다.

이 연합회는 전 대한축산진흥회의 정관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축산단체의 총체로서의 면모를 나타냈다.

이 연합회의 목적은 각 축산단체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함과 아울러 축산업의 전진한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축산정책의 조사연구와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축산물의 증산과 유통 및 수출증대를 지원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각 회원간의 사업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축산정책 수행지원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조의, 3) 축산물 생산비 조사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4) 사료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6) 축산기술개발, 보급 및 국내외 수출, 7) 축산경영진단 및 지도, 8) 축산관계 홍보사업 및 출판물 간행, 9) 축산관계 용역 및 회원이 위촉하는 사업, 10) 정부의 자문 및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축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차지하리라 한다. 회원의 자격은 축산관계단체로 되어 있는데, 축산인 각자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관련되는 어느 축산단체에 가입되어 있는자는 그 단체의 장이

가입됨으로서 간접적인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자격으로서는 회원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 날 총회는 32명이 참석하였고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위임장을 보내온 회원 36명을 포함하여 도합 68명으로 성원이 되었는데 이 자리엔 남 익 농수산부 식산차관보, 김영진 축산국장, 이인규 축산과장, 유남열 낙농과장 등이 참석하여 축산인들의 질의에 답하였다.

김재춘 회장은 인사를 통해서 “연합회가 하여야 할 일은 많다”며 ①축산물 생산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②축산물 유통개선에 힘쓰며, ③축산단체간 이해상반되는 단체의 조정, ④기술, 서비스 등 정확한 기술용역을 확보하여, ⑤정부가 직접 참여 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문제를 사업의 일환으로 해결, 추진해 나가자고 말하고 이 단체의 발족과 더불어 축산발전의 기초가 되도록 관계

당국의 축산담당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오늘 발족하는 이 연합회가 원만히 이끌어 나가고 축산업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축산단체가 단합해야 한다면서 인산협회가 발전되어온 과정을 예로들어 설명했다. 즉 인삼연합회가 과거의 밀수출입을 방지하고 인산값을 상승시키는데 노력했으며 이를 해외 시장에 많이 수출하여 국가의 신용을 높였는데 과거 100萬불수출에서 현재는 1,000만불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생산자들에게 생산자금과 수매자금을 분배하여 인삼업체의 발전을 가져온 사실을 지적, 이

축산단체연합회도 전체 축산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선 축산안정기금을 설정하고 그러한 과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

이어서, 남 익 식산차관보는 치사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는데, 정부는 축산에 대한 보다높은 관심을 갖고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세제,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어느때 보다도 축산발전을 위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축산인들은 이에 적극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세계는 식량난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국가가 많음을 지적, 식량개발이 더욱 요청되고 있는 이때 넓은 의미에서 축산을 통한 식량개발이 이루어져야 할지를 절실히 느끼는 데에 축산인의 충체인 축산단체연합회의 탄생으로 모든 축산인이 협력, 호응해 주기를 요청했다.

식산차관보 치사에 이어 정관심의와 임원개선이 있었는데 그 개선된 임원을 보면 회장은 김재춘 대한양계협회장, 부회장에 유윤수 사료협회장과 최영규 서울우유협동조합장, 이사에 유은선 서울축산협동조합장, 유종래 대구축산협동조합장, 김억수 디양축산협동조합장, 임동섭 보령축산조합장, 박정근 축산물증산수출사업회장, 김홍기 동물약품협회장, 활영구 종축개량협회장 이상 (7명)과 감사에 김동하 한국이마사협회장, 정갑성 진주축협조합장 선임되었다.

*일본 육계 판매업자 부로일러 수출입 협의차 본회 내방

일본 “다이에” 주식회사의 상무취체역이며 사업개발 본부장인 “이리에 요시오”씨와 주식회사 오에테루 사장 오에다 태루오(上田照雄)씨, “고가 축산판매주식회사” 사장 “후까가와, 가쓰후미”씨가 한국의 부로일러를 일본에 수입하기 위한 탐색차 본 협회를 내방 수출입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다이에 주식회사는 일본 전국에 180여개의 슈퍼-체인(super chain)을 갖고 있는 대단위 유통회사로 한국에서 육계를 수입 일본소비자에 공급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사료비의 양동과 기타 제반 경비의 상승으로 털고기 공급가격이 생산비를 카버하기 힘들어 한국에서 털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내한한 것인데 “이리에 요시오”상무등은 지난달 내한하여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대한사료 도계장, 농장, 부로일러 단지 등을 견학하고 일본으로 떠났다. 대한양계협회에서는 일본에 부로일러를 수출할 경우 국내생산자에 얼마나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부로일러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일본 노자와구미(주), 이시다·레이기지씨등 한국 하바드 농장시찰

일본 노자와구미 주식회사, 축산부장 이시다 레이기지씨와 오구무라 요시미씨가 한국의 하바드 농장을 시찰하고 축산물의 수출입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 대한양계협회와 한국하바드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노자와 구미주식회사는 축산물의 수출입 업무를 취급하는 무역회사로 일본 하바드 원종농장도 가지고 있다

곡물협회 박영인차장 대만 양돈업계시찰

미국사료곡물협회 박영인차장은 한국을 방문 양돈업계를 돌아보고 있는 렌스만씨와 같이 지난 5월 19일 약 1주일간 예정으로 대만의 양돈업계를 돌아보기 위하여 출국하였다.

◎ 미국식육생산 감소

미국의 2월 중 식육류생산은 1백 20만톤으로 지난해 2월보다 2% 가 올해 1월보다 18%가 각각 감소했다고 미국농무성 도축보고서가 밝혔다. 쇠고기 생산은 73만톤으로 73년 2월보다 4%가 줄었고 도살전수는 2백 54만 3천두로 5%가 감소했으나 두당 평균 생체중은 4백 83kg이었다. 한편 돼지고기 생산은 45만 4천톤이었다. 이것도 전년에 비해 2%가 감소되었다. 도살돈수는 5백 96만두이며 생돈의 두당무게는 1백 10kg이었다.



월성에 貝化石脈

경북 월성군 북면 홀천리와 손곡리에서 실내장식용 및 양계, 양돈사료의 사료로 쓰임 貝化石脈이 발견돼 화재가 되고 있다. 약 4백만톤으로 추정되는 이 패화석맥은 지난 68년 3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윤주락씨에 의해 발견돼 국립과학자질연구소가 그해 8월부터 73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추한 결과 2천 5백만년전의 패화석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배합사료에 섞어 가축에 먹이면 약 15%의 성장촉진을 보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73년도 곡물도입량

쌀 : 43만 7천톤(톤당 259불 11센트)
보리 : 35만톤(톤당 147불 50센트)
밀 : 183만 5천톤(톤당 120불 60센트)
옥수수 : 57만 6천톤(" 103불 30센트)
콩 : 7만 3천톤(" 225불 70 ")

○ 이전 및 전화 증설

※ 한국양돈협회 중구 오장동 13의 5호 (영진빌딩 4층)로 전화 : 26-5010 29-1063
※ 삼성사료 용산구 한강로 2가 361-7(칠성빌딩 502호)로 전화 : 43-2360, 0964,
※ 신촌사료 전화증설 : 34-7067

미국 옥수수 작부면적 12% 증가



미국 농무성이 3월 14일 발표한 3월 1일 현재의 농가의 作付計劃報告에 의하면 1974년도의 일부 곡물의 작부 면적 추정은 다음과 같다.

가금 박람회

준비 순조롭게 진행

제15차 세계 가금회의 및 박람회가 오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데 4년마다 열리는 이 회의는 세계 가금학회가 주관하는데 이 회의에는 세계 가금학자, 사육자,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 정부 관리 등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 등 세계 31개국이 지부를 두고 있으며 58개국에 회원을 두고 있다. 현재 세계 가금 박람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이 박람회에 전시될 각종 자료들이 입수되고 있다고 한다.

구 분	74년 추정	73년 실적
옥수수 (전체)	78,803	71,611
白色옥수수(위에 포함됨)	578	517
총	55,041	57,297
수 수	19,017	19,303
마카로니 (小麥)	4,243	3,043
大 麥	9,534	11,335
米 穀	2,377	2,181
아 마 니	1,790	1,777
落 花 生	1,525	1,541
其 他, 봄 小 麥	15,378	12,811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대표를 파견할 예정이며 서울농대 한인규 박사등의 논문도 제출하리라 한다. 또 이 박람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달걀을 수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자들도 많은 출품을 바라고 있다.

미국 곡물재고 감소경향

미국 농무성이 지난 3년간의 4월 1일 현재 주요곡물 국내 재고 총량(농가, 유통업자, 정부 보유총계)을 집계 발표한 것을 보면 올해 4월 1일 재고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밀이 73년보다 41%

옥수수가 15% 감소했으며 사료곡물(옥수수, 수수, 귀리, 보리)은 14%가 감소했다.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재고량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재고량 (단위 : 1천t)

연도 품목	1972	1973	1974
밀	23,980	25,264	14,980
옥수수	85,804	84,779	72,543
수수	12,175	9,210	9,713
귀리	10,682	8,473	6,309
보리	7,730	7,040	5,869
콩	15,049	13,724	20,223

※ 미 농무성 4월 1일 현재

FDA 말린계분사료화

여름까지 승인할듯

전조된 닭똥을 가축먹이로 생산판매하기 위한 계획이 F.D.A (미 식품약정국)인 승인만 얻으면 실현될 단계에 있다. F.D.A 는 최근 사료가격이 계속 오른점을 감안 올여름까지 이 계획을 승인할 것이라고 관리들이 믿고 있다. 닭똥사료는 축우 및 면양사육에 필요한 단백사료의 약 50%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축우 면양용 사료제조에 사용되는 콩과 어분을 대폭 대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닭똥사료에는 약 30%의 단백질이 포함되고 있어 다른 단백질사료를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는데 가격은 톤당 25~40달러로 아주 싼셈이다. 미국은 산란용 닭의 배설물만으로도 연간 약 45만톤의 가축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암축산고등기술학교 개교식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중요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농기그룹이 설립한 연암축산 고등기술학교가 지난 5월 7일(화) 개교 기념식을 가졌다. 고연암 구인회 선생의 유언에 따라 설립된 이 학교는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투철한 정신과 근면, 협동으로 과학적 축산기술의 이론과 실제를 통해 축산인을 양성, 국가지역사회 발전에 앞장 설수있는 농촌지도자를 배출하는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맡게 됐다. 이날 개교기념식에는 민관식 문교부장관을 비롯, 구태희 무임소장관, 국회의원, 김수학 충남도지사, 김성식 충남교육감등 정부관련기관의 고위인사들과 내외귀빈, 학부형이 참석한 가운데 간략하게 거

행됐다. 한편 민관식 문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고연암의 뜻을 받들어 땀흘린 구자경이사장과 관계자 및 학부형의 노고를 치하하며 한결같이 원시적 농업을 탐습하고 있는 영농방법에서 새로운 산교육을 위주로 교육하게 될 연암학교의 탄생은 축산입국을 지향한 국가요청에 부응되어 매우 경영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연암학교에 첫 발을 디딘 학생들은 축산발전을 위해 내몸을 바치겠다는 신념을 갖고 고연암선생의 생전의 산철학을 되새겨 기술연마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방대한 시설을 갖춘 범염농장을 견학했는데 이 농장에는 현재 산란계 3만수(12동), 돼지 2,400두(8동), 소 107두(1동)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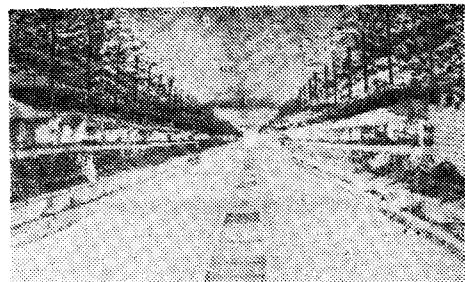
료공장을 비롯 종합축산의 면모를 갖춘 시설을 확충해 나가리라한다.

천일곡산, 일산 150톤 규모의 옥분 공장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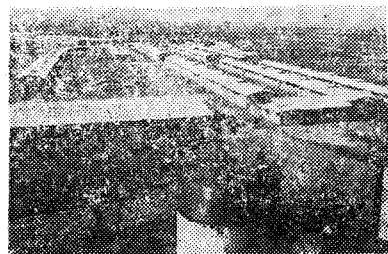
천일곡산은 일산 150톤 규모의 옥분가공 공장을 완공, 지난 4월 29일 준공식을 가졌다. ADB차관 50만 달러와 내자 3억원 등 모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작년 3월 영동포구 당시동(제1공장부지)에 연전평 5백평 규모로 착공, 1년 만에 준공된 것인데 앞으로 대체효과가 큰 탁주, 백주, 그리고 식품원료로서 玉粉을 공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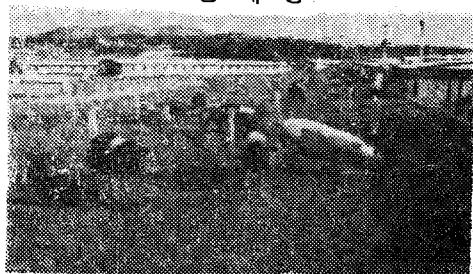
개교식 광경



양계장



실습장 전경



양돈장